

# 豐壤趙氏族譜序

豐壤之趙實為東方大姓始祖  
曰趙孟佐高麗太祖賜總令三轉  
壁上開國功臣弼位至上狂國三重  
大匡門下侍中平章事自侍中以後  
迄今七百有餘載子姓益蕃昌遠

官聞人前後相望世之數東第門戶之  
懿者指不待先趙氏屈傳所謂德厚  
流光不其微歟趙氏產有譜趙公始  
身凡中就加修正詔錫身之趙氏外裔  
庸以叙引之文錫身辭不獲謹以一說申  
之嘗聞程子有言曰管攝天下人心

收宗族厚風俗使人不忘本須是明譜  
系立宗法曉宗法之不講久矣勝國時  
有武目之官掌記世族源派後亦無聞  
之世士夫家稍以修明譜牒為事余  
每喜聞而樂道焉為其有宗法之遺意  
也今趙公之意其亦有見於斯歟至於

汎流而求源樂生而返始無墜奕世家  
 勳允去古人鐵鑪之談則惟在後那  
 之自勛焉耳是為序 歲著雍  
 敦祥仲秋日完山崔錫昂書

(譯文)

豐壤趙氏는 實로 東方의 大姓이 된다。 始祖를 趙孟이라 하는데 高麗太朝를 도와  
 統合三韓 壁上開國功臣이란 稱號를 下賜받고 地位가 上柱國 三重大匡 門下侍中平章事  
 에 이르렀다。

侍中公 以後로 現今까지 七百餘年 동안에 子孫이 더욱 蕃昌하고 達官과 聞人들이 앞 뒤로 서로 잇달아 世上에서 東韓의 훌륭한 家門을 치는 者들이 손가락을 趙氏보다 먼저 꼽지는 못하게 되었으니 穀羊傳에 이른바 「德厚流光」이란 말의 證據가 아니겠는가?

趙氏는 옛날부터 譜牒이 있었는데 趙始鼎(醉水亭) 兄弟 분이 여기에다 修正을 加하고、「錫鼎도 또한 趙氏의 外孫」이라 하여 序文을 부탁하여 왔다. 錫鼎이 사양하다 못하여 삼가 一說로써 當부하려 한다.

일찌기 듣건대 程叔子는 말씀하기를 「天下의 人心을 管攝하되 宗族을 收合하고 風俗을 厚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根本을 잊지 않게 하려면 모름지기 譜系를 밝히고 宗法을 세워야 한다」하였다. 아! 宗法이 講修되지 않은지도 오래 되었다. 高麗 때에는 式目都監이란 官廳이 있어서 世族의 源派를 管掌記錄하였으나 그 후로는 또한 들은 바 없고, 近世에 들어 士夫家에서 점점 「譜牒을 修明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하니 내가 매양 기꺼이 듣고 즐겨 말하는 것은 宗法의 遺意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趙公이 意圖하는 바도 또한 이에 있다 하겠다.

流派를 거슬러 올라가 根源을 찾고、生存을 즐김에 根本을 생각하여 古人의 이른 바 「有名無實」하다는 批評을 免하려면 오직 後孫들의 自助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를 序文으로 한다.

戊午年

(肅宗四十四年  
西紀一六七八年)

八月 日

完山 崔錫鼎 跋。